



낙동강이 품고 있는 역사문화적 의미에 대한 열정적인 물음, 천삼백 리의 행보 《신정일의 낙동강역사문화탐사》

〈출판저널〉이 채창간호였던 지난 2월호(통권 327호)부터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선정 작업이 5월로 4회째를 맞는다.

〈출판저널〉 취재기자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지난 4월 9일 1차 독회 설명회를 갖고 열다섯 권의 후보작들을 다섯 권으로 압축했다. 이는 다섯 명의 선정위원이 세 권씩을 추천하고 독회 평가를 청취한 후 스스로 한 권씩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선정위원회가 지켜가고 있는 선정기준은 정보로서의 소용성과 도서상품으로서의 완성도, 그리고 시의적 가치와 기획의 참신성 등이다.

선정위원회는 1차 독회 설명회에서 압축된 다섯 권의 책을 놓고 4월 11일 2차 독회를 열고 진지하면서도 신중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 언급된 최종 후보작은 《신정일의 낙동강역사문화탐사》(신정일, 생각의나무), 《김시습 평전》(심경호, 돌베개), 《여성시대에는 남자도 화장을 한다》(최재천, 궁리), 《마녀가 더 섹시하다》(김순덕, 굿인포메이션), 《반미교과서》(홍성태, 당대) 등이었다.

《신정일의 낙동강역사문화탐사》는 저자의 일관된 기획력과 작품생산에 들인 공력, 그리고 강을 삶과 문화의 총체적인 터전으로 바라보는 저자의 긍정적인 시선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시습 평전》은 단편적으로만 알려진 조선초기의 문인 김시습의 입체적 모습을 구현해 낸 노작으로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지나친 전문성이 오히려 평전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지평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여성시대에는 남자도 화장을 한다》는 ‘여성시대’를 사회생물학적으로 바라보는 저자의 독특한 관점이 참신하다는 평가 함께 재미있게 읽힌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마녀가 더 섹시하다》는 섬세하고 날카로운 필치로 현대 미국, 여성, 교육, 사랑 등의 이슈에 대해 거침없는 논조를 개진하는 저자의 당당함이 강점이라는 평이 있었다. 1997년부터 반미시위의 의미와 형태를 분석하면서 글을 써왔던 저자의 반미론을 담고 있는 《반미교과서》는 ‘반미’ 개념에 대한 합리적인 함의 도출을 견인해 낸 책이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는 평이 있었다.

선정위원회는 이들 다섯 권의 책을 놓고 열띤 토론 끝에 《신정일의 낙동강역사문화탐사》를 〈출판저널〉 5월호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로 최종 선정했다. 이 책이 선정된 데는 저자가 발품으로 강 유역을 탐사하며 강에 얽힌 우리 삶과 문화의 사실적인 풍경을 되살리는 동시에 자연과 환경과 파괴에 대한 고발, 강의 생태계 공원 조성 등 시의적절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측면이 비중 있게 고려되었다. 모쪼록 이 책이 보다 많이 읽혀 낙동강이 품고 있는 그 진득한 문화역사적 의미를 독자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출판저널**